

간성읍 죽왕면 토성면

▶죽왕면 시민기자
최돈불(choi3789100@hanmail.net)
▶토성면 시민기자
강성희(ruthcanada@hanmail.net)
김태극

※간성·죽왕·토성에서 발생하는 아기
자기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하는 시
민기자를 모집합니다. <문의 : 681-1666>

엄기인·송규화씨 대의원 당선

토성농협 지난 17일 원암리 간담회 개최 ... 조합원 43명 가운데 23명 투표

토성농업협동조합(조합장 김명환)은
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 원암리 마
을회관에서 농협관계자 및 조합원 23명
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결산총회 승
인사항 및 2010년도 사업내용 운영공
개 방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공개를 시작
으로 대의원 선출 선거가 실시됐다.

이번 대의원 선출 결과 원암리 조합원
총 43명 가운데 23명이 무기명 투표로
참가해, 엄기인 후보가 19표, 송규화 후
보가 16표로 당선됐다.

당선인은 토성농협에서 실시하는 각
종 사업 계획 및 결산 승인 표결권, 감사
선출권 등이 주어진다.



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 원암리 마을회관에서 조합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성농협 간담회
가 열렸다.

박승근 기자

간성 김밥천국

김밥·분식·식사류

모든 메뉴를 포장·배달해 드립니다

681-9999

영동OA사무기

□디지털복사기 □소모품판매
□잉크젯·레이저 프린터 □팩스
□복합기렌탈 □LCD프로젝터

681-7607, 010-3179-7607

바다풍경 편의점

“경동대 입구·학생 환영”

각종 생활용품
문구류·케익류

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79
☎033-633-7282

간성·죽왕·토성 광고 문의
☎681-1666~7

우리 마을 일꾼 ◇토성면 아야진3리 김창언 이장

“군사규제 완화되면 지역발전 큰 도움”

“마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
을 다하는 이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
습니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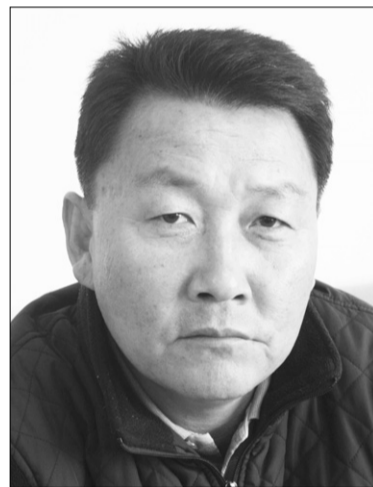
김 이장은 토성면 아야진리 6개리
중 하나인 170세대 60세 이상이
60% 주민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
는 아야진 3리 집사다.

3년째 토성면 아야진3리를 위해
일하고 있는 김창언 이장(49세, 사진)
은 “아야진 몇 리라는 것보다 아야진
자체에 대해 애정이 더 강다”고 했다.

김 이장은 그래서 아야진에 대소사
가 있으면 3리뿐만 아니라 아야진 전
체의 일이라는 생각에 다 함께 회의하
고 의논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소개
했다.

그만큼 아야진 전체가 단결이 잘되
는 마을이라는 설명이다.

아야진 마을은 구전에 의하면 속칭
으로 ‘구암리’로 불려왔다. 아야진 등
대에 위치한 바위가 거북처럼 생겼다
고 하여 거북 ‘구’자와 바위 ‘암’자를
써서 유래되었다. 이후에는 애기미로



도 불렸다.

지금의 이름은 아야진6리 교회로
접하는 아야진에서 반암리로 넘어가
는 ‘산’ 행태가 잇기 ‘야’ 자처럼 생겼
다고 하여 우리라는 뜻을 포함해 붙여
진 이름이다.

아야진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는 김
이장은 오늘도 회사일을 하면서 주변
청소를 열심히 하며 따뜻한 미소와 잔

잔한 웃음을 잃지 않는다.

김 이장은 집사역을 맡으면서 평면
교차로인 소방진입로 확장 포장을 성
사 시켰으며, 매년 한번씩 치성제 지
내는 날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차려 식
사 대접을 한다고 했다.

또 저소득층이 70%를 차지하다보
니 독고노인 및 노부부 가정을 방문해
집수리와 청소를 해 주고 있다고 했
다.

김 이장은 “아야진리는 천혜의 자
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과
군사 규제가 많아 이를 활용 할 관광
인프라 구상을 못하는 게 안타깝다”며
“이러한 규제를 완화만 해준다면 관광
객 유치 및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
될 것이다”고 했다.

그는 또 “아야진리의 지역발전을
위해서 하나가 되고 화합과 단결이 될
수 있는 한마당 큰 잔치를 유치 하는
것이 희망이다”고 했다.

박승근 기자

경조사·모임·구인·구직·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

◆전화 : 681-1666~7 ◆팩스 : 681-1668

생활정보 접수방법

◆이메일 : goseongnews@hanmail.net ◆핸드폰 문자 010-2022-2633

※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.

간첩·테러범·방산스파이·사이버테러·군사보안 신고상담은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번, 국군 기무부대로!